

보물 제597호

토기 융기문 발

2018. 9. 4.^{TUE} - 12. 23.^{SUN}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층 로비

특별강연 9월 19일 수요일 15시, 세미나실



토기 융기문 발 土器 隆起文 鉢

신석기시대 / 영선동 패총 출토 / 보물 제597호 / 높이 11.9cm

토기 융기문 발은 일제강점기 부산 영선동 패총에서 채집된 신석기시대 전기의 토기이다. 반구형의 바리형 토기로 입부분 한쪽에 짧은 귀태^{귀태}가 부착되어 있고 몸체 상부에 V자형으로 점토피가 붙어 있다. 점토피 위에 새김문양으로 장식효과를 높인 신석기 시대인의 미의식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유물 점검 과정에서 귀태 부분의 균열과 점토피 장식에서 일부 미세 편 분리가 확인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협력하여 보존처리 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토기 융기문 발의 내부 속 이야기와 원래의 토기색과 질감을 되찾은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석당뮤지엄 WEEK

“토기를 치료해주세요”

9.18(화)~9.20(목)

전시해설+보존처리 강연

+토기빚기 체험

주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후원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디지털보존솔루션랩
LRS DIGITAL CONSERVATION SOLUTION

처리 전 보존상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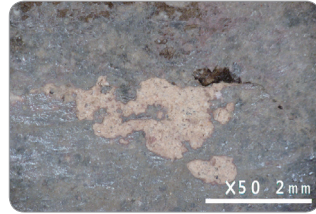
토기는 귀दै와 구연부에서 균열과 탈락 그리고 내·외부 곳곳에서 과거 수리 흔적이 보였다. CT촬영과 성분 분석 결과 여러 개의 파편으로 분리된 것을 접합 복원한 상태로 복원제는 주로 석고이고 일부 합성수지 접착제가 사용되었다. 토기표면에서는 티타늄, 납 등이 검출되어 색맞춤 안료가 칠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토기 용기문 발은 2회 이상의 수리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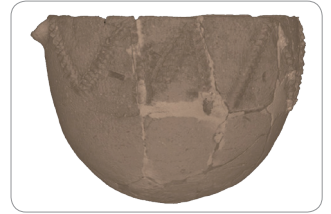
귀दै 및 구연부 균열



용기문 장식 일부 미세 편분리



과거 수리복원 부 채색층 탈락



CT촬영을 통해 본 내부구조(좌면)

보존처리 과정

보존처리는 처리 전 상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표면세척, 이물질 제거, 접합 및 복원, 색맞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종합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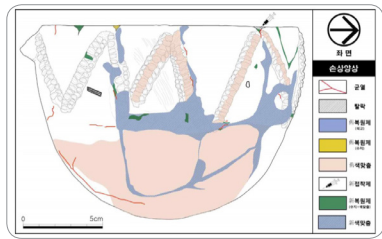
표면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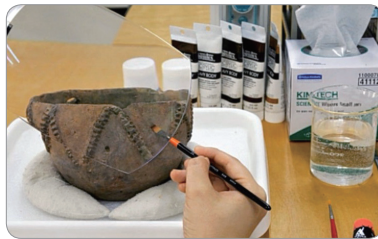
이물질 제거



결손부 메움처리



처리 후 기록(보존처리 도면)



복원부 색맞춤



균열부 보강처리

보존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표면세척 후



접합복원 후



보존처리 후